

単発音読クリニック 上トレ6 無謀な夢がリーダーを育てる

최근 한 대학에서 리더십 특강을 해달라고 했다.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엔 리더십의 '리'자도 못 들어 본데다, 지금 하는 일도 수십, 수백 명을 이끄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니 할 말이 없다고 꿈무늬를 뺐다. 그런데 담당 교수 왈 "엄청난 리더십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니 직장에서 일한 경험과 거기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"고 했다.